

...waiting... 대림 4 산호세 한인 순교자 성당 성심 성가대

“대림 제 4 주일”

자선 주일 (가해)

<http://www.sjkoreancatholic.org/>

[마 태 , 1 , 18 - 24]

2010.12.19

금주의 강론

[유한빈 신부님 강론에서]



성탄은 그런 삶이 이 세상에 출현한 사실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오늘 들은 복음은 ‘그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출현은 하느님이 하신 새로운 일이었다는 초기 신앙인들의 믿음을 담아 전하는 말입니다. 하느님은 예수님의 삶 안에 함께

계셨고, 그 삶을 배워 실천하는 우리들 안에 하느님은 살아계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에 마음을 빼앗기고, 권력의 화려함에 심취한 나머지, 허장성세(虛張聲勢) 거품을 쫓는 인간의 삶 안에는 물질과 권력은 있어도, 하느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권위라는 허세도 없이, 홀륭함이라는 허풍도 없이, 약자의 초라함과 서민의 애환을 당신 것으로 하면서 인류역사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 것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주면서 당신이 아버지라 부르던 하느님과의 연대성을 사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느님과 같은 연대성을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막강한 하느님을 찾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휘두르는 권력이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믿

었습니다. 싸워서 이긴 사람은 하느님이 자기편에 계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재물을 가진 사람은 하느님이 주신 재물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은 하느님은 높은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느님은 강하고, 이기고, 재물을 주는 높은 분이려야 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상상하며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믿고 가르친 하느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에 대해 양보하지 않았습니 다.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라 부르던 하느님을 버리고 사람들이 상상하던 하느님으로 바꾸지 않았습니 다. 하느님은 강하고, 승리하고, 재물과 권력을 주는 분이 아니라 고집하던 사람들의 위협 앞에 예수님은 맞섰습니 다. 그리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분을 처형한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내려오는 기적을 해 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라고 하느님에게 기도하면서 죽어 가셨습니다. 하느님은 강자도 아니고, 승리자와 함께 계시지도 않았습니 다. 하느님은 스스로를 내어주고 쏟으면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실천한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느님은 심판하고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우리의 노력들 안에, 또 사람들의 불행과 고통을 퇴치하기 위해 봉사하는 우리의 노력들 안에, 그 노력의 원천으로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성탄이 다가왔습니다. 옛날 베들레헴의 구유에 탄생하셨던 그 생명이 우리의 삶 안에 살아 계시도록 기도합시다.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돌보아주며 섬기는 우리의 보잘 것 없는 실천들 안에 하느님이 함께 계십니다. ◆



가족 동정 및 공지 사항

- 금주(12/19) 오후 성가 연습때에는 2:30부터 3:30까지 성탄 전야제 연습을 할 것이니 그동안 참석하지 못한 모든 단원들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원회의 소집 공고:** 12/26(일) 교중 미사후 2011년 성가대 운영 전반에 관한 폭 넓은 의견을 수렴코져 임원 회의의 소집하오니 모든 임원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전 임원들은 다시 유임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모임장소는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성가대 좌석에는 Open Mic가 두대 설치되어있으며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립니다. 항상 정숙하게 좌석에서 다른 교우들이 좀더 분심없이 미사에 열심히 참석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박 영아 소피아 자매님은 현재 한국 방문중에 계십니다. 여행중에 주님과 함께 즐거운 일만 있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 시대의 이스라엘 안에 옛날처럼 평화가 깃들게 해 주시기를!(집회50. 23)”



1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19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과혼하기로 작정하였다.

20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

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21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22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23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24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1분 명상

♡ 나눔의 비밀 ♡

- 法頂스님 법문中에서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고,
 갖지 못한 사람의 처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남이 가진 것을 시샘하지 말고
 자신에게 불필요한 것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맑은 가난"의 실천이지요”

“옛날부터 성인들께서는 먼저 남을 돕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만약 도울 수 없다면
 (남에게) 해는 끼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을 주면 도움을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충만(充滿)해지며, 특히 주는 쪽이
 더욱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나눔의 비밀"이지요

토막 교리

“전례란?”

전례(典禮)는 교회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왜냐하면 사도적 활동의 목표는 모든 이가 신앙과 세례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한데 모이고, 교회 안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고, 또한 주님의 만찬[성체]을 먹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전례 10).

그러므로 전례가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지만 전례를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전례에 참여하여 전례를 생활화할 때 우리 구원은 확고해진다.

전례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계속 수행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이다. 즉 교회가 성서나 성전(聖傳)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공인한 의식(儀式)으로 개인의 신심생활과는 구별된다.

금주의명언

“상냥하고 친절하 마음이 있는 곳에 세상의 희망이 있다.”